하얼빈-안중근 의거의 현장

한국근현대역사기행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1909)













뮤지컬 영웅/뮤지컬 영화(2022)





하얼빈 역(과거)



하얼빈역에 내린 이동박문과 러시아대장 일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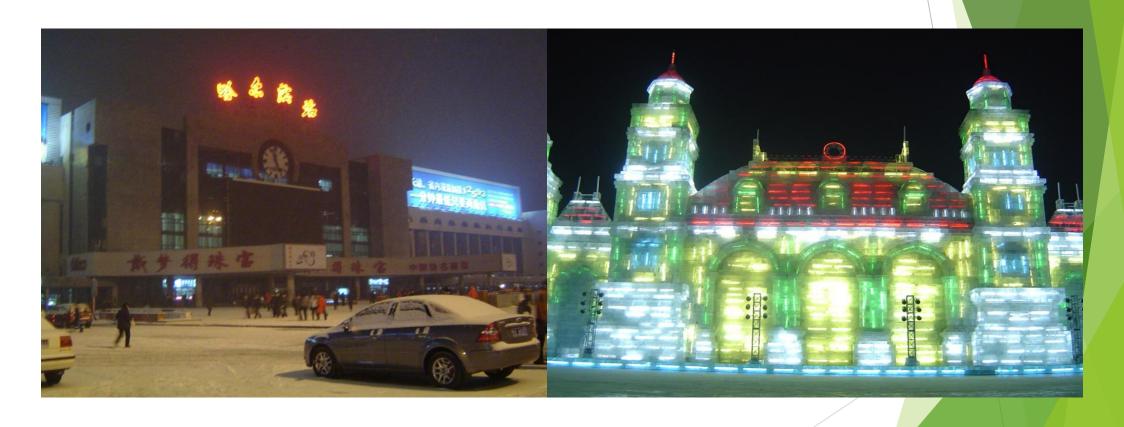
의거당시의 하얼빈역

의거당시의 하얼빈역두





하얼빈 역(현재)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를 쏘다.

- ▶ 1907년 북간도로 망명한 안중근은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등지에서 의병부대 조직, 일본군과 전투(1908년 두만강 너머 국내진공 작전, 함경도 전투에서 50여명 사살, 10여명 포로 석방, 결국 패전) '대한의군' 참모중장, 특파 독립대장 호칭
- ▶ 이후 연해주에서 국민회·일심회·동의회 등 항일조직 결성, 1909년 3월, 동지 12명과 '동의단지회斷指會 (일명 단지동맹)' 비밀결사 조직.
- ▶ 왼손 무명지 첫 관절을 잘라 선혈로 '대한독립' 혈서를 쓰고 만세삼창



독립운동기지로서 연해주

- ▶ 연해주- 헤이룽강, 우수리강, 동해로 둘러싸인 땅으로 러시아 85개 연방지역 중 하나. 우리나라 1.6배. 원래 중국 북방민족 지배(금·원·청)였다가 1860년 러시아가 차지(베이징조약)
- ▶ 고조선, 고구려・발해 영역(영토)로서, 1863년 이래 두만강 건너로 한인이주, 집단 거주지 '한인촌' 건립. 1910년 병합 전후 독립운동세력 망명으로 만주와 함께 독립운동 기지가 됨
- ▶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 최 페치카(최재형 1860~1920), 함경도-> 연해주 이주-> 1878년 블라디보스톡 1878년 블라디보스토크 상사에서 돈을 모으고, 연추(煙秋)에서 농장. 1884년 블라디보스토크-두만강 하구 군용도로 건설에 한인 참여. 러시아 훈장 수여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 최재형





독립운동기지로서 연해주

- ▶ 1904년 러·일전쟁에 러시아 해군 통역장교로 참전.
- ▶ 1907년 이범윤 등과 의병 조직, 연해주에 망명한 안중근과 만남
- ▶ 1908년 거액의 군자금을 제공, 연추 아지트에서 이범윤·이위종·안중근 등과 최초의 독립운동단체 '동의회(同義會)' 조직(총장).
- 동의회 의병부대는 연해주 최남단인 하산에서 두만강을 건너 우영장(右營將) 안중근 등의 지휘로 일본군과 격전.
- 안중근 의거의 막후. 안중근의 단지동맹도 최재형의 집에서 이루어짐. 자금과 권총 구비, 거사 후 변호사 섭외(러시아 법정, 국제변호사를 선임 시도했으나 실패). 안중근의 가족 보호



男兒有志出洋外 事不入謀難處身 望須同胞誓流血 莫作世間無義神

사나이 뜻을 품고 나라밖에 나왔다가 큰일을 못 이루고 몸두기 어려워라. 바라건대 동포들아 죽기를 맹세하고 세상에 의리없는 귀신은 되지 말지어다.

<안중근의사가의병을 이끌때 읊던 시>







안의사와 단지동맹의 동지 황병길과 백규삼

독립운동기지로서 연해주

- ▶ 1909년 대동공보, 대양보 등 신문 발행
- ▶ 1911년 말 신한촌에서 권업회(勸業會) 가 설립-> 전로(全露)한족회중앙총회-> 대한국민의회
- ▶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발발 후 러시아와 일본 동맹으로 연해주 항일운동 타격
- ▶ 1917년 러시아혁명 후, 1918년 한족대표자회의 명예회장
- ▶ 1919년 블라디보스토크 만세운동 주도, 최초의 임시정부 '대한국민의회'외교 부장. 1919년 상하이 임시정부에는 초대 재무총장으로 선출됐지만 사퇴. 노선 차이
- ▶ 러시아혁명 후 1918년 일본의 시베리아 출정, 1920년 4월 블라디보스토크, 우수 리스크의 한인촌 습격, 대대적인 학살 자행. 최재형 재판 없이 총살. 유해 불명
- ▶ 연해주 독립운동가 고려인문화센터(2009), 최재형기념관(2019). 부인의 유해만 2023년 키르기스스탄-> 현충원 안장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를 쏘다.

- ▶ 1909년 10월 26일, 이토가 러시아의 재무대신 코코프체프(Kokovsev, V.N.)와 회담을 위해 특별 열차를 타고 하얼빈에 도착.
- ▶ 열차에서 내린 이토가 플랫폼의 의장대 사열 후 환영군중 쪽으로 발길을 옮기는 순간, 안중근이 뛰어나오며 이토에게 브로닝 권총을 발사, 3발 명중(흉부와 복부) at 9:30AM
- ▶ 추가 3발(하얼빈 일본 총영사, 비서관, 만철이사 3명)
- ▶ 코레아 우라(대한국 만세) 3창하고 체포됨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를 쏘다.

- ▶ 이토는 열차 안으로 옮겨져 20분만에 절명
- ▶ 체포된 안중근은 러시아 검찰관의 심문(이름 안응칠, 31세, 국적 한국, 신앙 카톨릭)
- ▶ 저녁 **8~9**시경 일본 영사관 지하 감방 구금
- ▶ 11월 1일 하얼빈->뤼순. 3일 뤼순감옥 수감
- ▶ 1910년 2월 7일~14일 뤼순 관동도독부 지방법원 공판
- ▶ 일본인 재판장, 검사, 일본인 관선 변호인
- ▶ 1910년 2월 14일, 사형 선고
- ▶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교수형으로 순국
- 죽음을 며칠 앞두고 안중근은 아우에게 "내가 죽거든 시체는 우리나라가 독립하기 전에는 반장返葬하지 말라…대한 독립 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을 추며 만세를 부 를 것이다"라고 유언



하얼빈-안중근 의거의 현장(2)

한국근현대역사기행



1.안중근은 누구인가?

- 1) 출생과 성장과정
- 황해도 해주 출생. 부유한 개화파 집안(부친 안태훈)
- 갑신정변 실패 후 신천군 청계동으로 이사
- 사냥 취미, 담대하고 급한 성격(아명 응칠->중근重根)
- 한문(사서삼경)과 신지식(만국역사) 습득
- 반(反)동학(16세), 농민군 진압 선봉장 Cf 김구(19세)와의 인연
- 2) 활동과정
- 1896년 18세에 천주교 입교. 부친과 함께 명동성당에서 교리 습득
- 빌렘 신부(홍석구) 초청, 청계동 일가 포교. 19세에 세례(토마스)
- 프랑스어를 배우고, 신사상 수용, 교회 활동
- 천주교신앙 vs 반서양인식: 파리외방전교회소속 빌렘신부, 뮈텔주교와의 관계 * 종교와 민족/ 천주교대학설립요청에 뮈텔 반대



1.안중근은 누구인가?

- 1905년 27세에 중국으로 출국, 상해 칭따오 등 유람
- 1906년 귀국, 진남포 이주. 삼흥학교, 돈의학교 설립, 운영(교장)
- 1907년 국채보상운동 참여, 군대해산 이후 간도 망명
- 1908년 연해주 이주와 의병투쟁
- 1909년 단지동맹=> 하얼빈의거

개화, 애국계몽운동, 실력양성운동론=> 의병투쟁=>의열투쟁으로 운동 방략 변화를 보임



1.안중근은 누구인가?

- 3) 하얼빈 의거(1909.10.26)
- 10월 21일 블라디보스톡 출발(동지 우덕순)
- 10월 22일 하얼빈 도착(통역 유동하 합류)
- 10월 23일 기념사진 촬영(동지 조도선 합류)
- 10월 24일 남행열차로 채가구 하차, 거사 준비(우덕순, 조도선)
- 10월 25일 안중근, 하얼빈에 돌아와 거사 계획
- 10월 26일 오전7시 유동하와 하얼빈 역 도착->찻집-> 9시경 이토 도착
- 영웅적 최후와 암매장, 가족의 불행













청계동 성당과 신자들

청계동 성당 내부모습

조셉빌렘신부

여순감옥에서 안의사를 면담하는 빌렘신부







하얼빈 역(과거)



하얼빈역에 내린 이동박문과 러시아대장 일행

의거당시의 하얼빈역

의거당시의 하얼빈역두



하얼빈 의거 현장





이토 히로부미를 총살 응징하는 안중근 의거 장면도(박영선 화백)

「도쿄일일신문」에 게재된 의거 직후 안중근 의사가 체포되는 장면을 그린 삽화







하얼빈 의거 영상

ITO'S MURDER PICTURED.

Machine Took Every Detail-Will Be Shown at Korean's Trial.

VICTORIA, B. C., Dec. 9 .- A moving picture of the assassination of Prince Ito at Harbin is to be used in the trial of the Korean assassin, according to advices brought by the steamer Kaga Maru to- nice Square and day.

A Russian photographer had prepared me of East Side to make moving pictures of the meeting my people past of Prince Ito and Minister Kokovstoff and t with all using caught the assassination scene. Japanese ra real attracofficials obtained a film 500 feet long, showing every detail of the tragedy. This will be exhibited at the trial.

olied. I am satisis and I am, conall the new cery-When I pass the ny competitors I the same films en I return to my same films here. he East Side pasething new, and t it is from the

St : if I am to service: I am

quest is beyond others have not

HAS AN ASSASSINATION PICTURE.

Paris, Dec. 6.

A photographic company in St. Petersburg, Russia, is seeking a purchaser for a special film it has been able to take. The price asked is 150,000 roubles. It is a moving picture supposed to have been taken at the time the Corean murdered the Marquis Ito, the Japanese minister.

The company had made arrangements to take views of the commission as it passed through the railway depot, never doubting that it would be privileged to record such an historical event as the assassination of Japan's greatest statesman -at least so the story runs-and they consider \$77,200 a nominal figure for the exclusive property.

PICTURES FOR A PENNY

Ray John P. Mason restor of the Math

Wilson is also to build

\$55,000 FOR IMPI

Theisa's former Alhan tomatic, in East 14th enlarged at a cost of & tion of a rear extensi and 60 feet dee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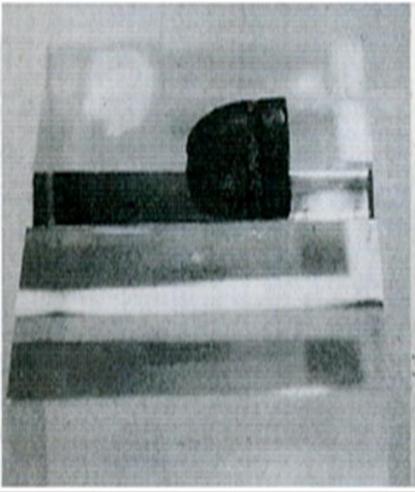
A part of the apace a stage and dressing cates that vaudeville with the pict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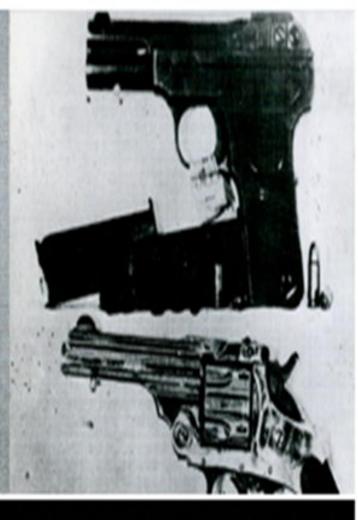
FINED ON ACCOUN

Henry Hemleb, prog picture show in Atlan lyn, was fined \$50 in ! week for allowing chil of age to attend the Company of parents o The authorities 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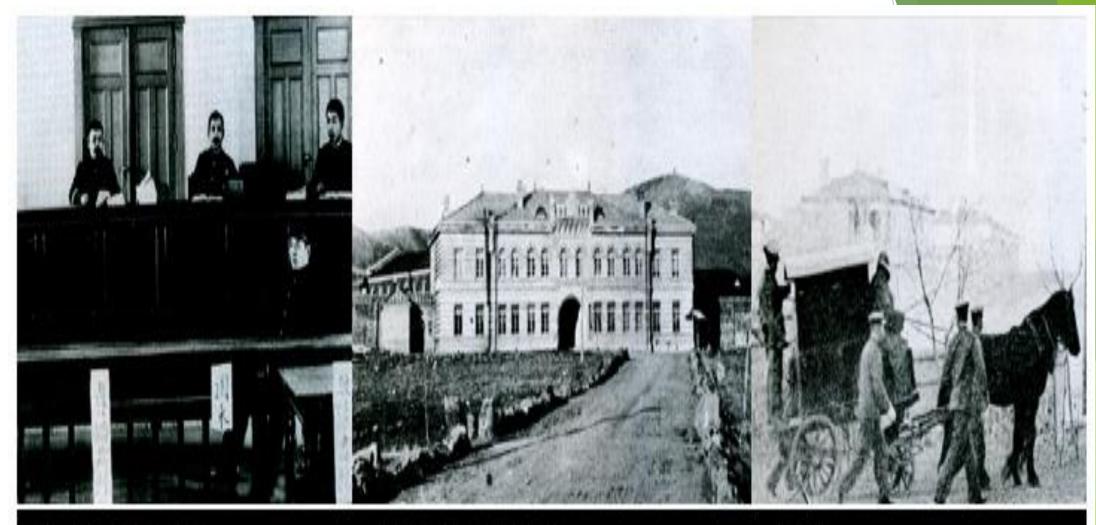


뒤로수갑이채워지고쇠사슬에 묶인안중근의사

의거시 발사한총탄의해나

의거시사용한 브로닝 권총(총기번호:262336)





안의사 공판시의 재판관원

안의사 수감당시의 여순감옥

호송마차





빌렘신부와 정근,공근 동생에게 유언하는 안중근의사

여순감옥 뒷산의 수인묘역



안중근 의사 최후





안중근 의사 재판법정





2. 안중근은 왜 이토 히로부미를 쏘았나?

안중근의 논리

- 1909.10.30 이토 히로부미의 죄상 15개조(최초의 일본 심문 at 하얼빈 일본 총영사관 지하감옥)
- 개인적 원한이 아닌, 대한국 의병 참모중장 겸 독립특파대장으로서 "동양평화를 위한 의전義戰을 하얼빈에서 개전"주장=> 만국공법(국제법)에 의한 재판 요구



이토 히로부미 죄악 15개조 (안중근 자서전에서)

한국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요. 한국 고종 황제를 폐위시킨 죄요. 을사5조약과 정미7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죄요. 무고한 한국인들을 학살한 죄요. 정권을 강제로 빼았아 통감정치를 한 죄요. 철도, 광산, 산림, 농지를 강제로 빼앗은 죄요, 제일은행권 지폐를 강제로 사용한 죄요,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켜 죄요. 민족교육을 방해한 죄요. 한국인들의 외국유학을 금지시킨 죄요. 교과서를 압수하여 불태워 버린 죄요. 한국인이 일본인의 보호를 받고자 한다고 세계에 거짓말을 퍼뜨린 죄요. 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에 전쟁이 쉬지 않고 살육이 끊이지 않는데, 한국이 태평무사한 것처럼 위로 천황을 속인죄요. 대륙침략으로 동양평화를 깨뜨린 죄요. 일본 천황의 아버지 태황제를 죽인 죄이다.



이토 히로부미



3. 안중근 재판의 부당성

- 1) 행위의 정당성 문제
- 테러 행위 vs 대의 명분(의병전쟁, 국제법에 의한 재판 요구)
- Cf. 장인환, 전명운(미수)의 스티븐스 암살 사건
- (샌프란시스코 법정/국제법. 장인환의 무죄 주장
- -> 2급살인죄 25년형, 10년 가석방)
- 2) 재판 관할권의 문제
- 러시아(하얼빈 조차지, 동청철도)
- 청(1899년 한청통상조약, 영사재판권)
- 일본(관동도독부, 일본 형법 적용)
- <=을사늑약(보호조약 유무효 논쟁)



3. 안중근 재판의 부당성

- ▶ 안중근은 개인적 살인 행위가 아닌, 의병참모중장으로서 전쟁 행위를 하다가 포로로 잡힌 자신을 국제공법이 아닌 보통 살인범 취급하며 뤼순 지방법원에서 심리하는 일본의 처사에 항의(1910년 2월 17일, 관동도독부 지방법원 판결에 대한 고등법원장 면담)
- ► 국제변호사(러시아인 미하일로프, 영국인 더글라스)와 조선인 안병 찬 변호사 등이 변론을 준비했으나 일본은 일본인 관선 변호인 파견
- 일본 정부 외무대신 고무라 쥬타로의 사형 지시(1909.12.2)
- 일본 측은 안중근의 이토 암살이 병합을 앞당겼다고 주장하나, 일본 측 병합 결정은 이미 1909년 7월6일.

